

#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33 호



주일 미사: 오전 9 시 (한국어, 영어), 오전 10 시 30 분(영어), 오후 12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29 )	봉헌 ( 512 )	성체 ( 188 )	파견 (283)
<b>2016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b>  <b>1 구역 :</b> 유 마리아(구역장),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양 유리안나,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잼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  <b>2 구역:</b> 이 마틸다(구역장), 이 그레이스, 장 글라라,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사비나  <b>3 구역:</b> 김 헬레나(구역장),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김 글라라. 이 율리안나.  <b>4 구역:</b> 김 유스티나( 총 구역장),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릅타, 김 유수티노, 김희정, 고순영.		<b>성소를 위한 기도</b>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9/11	이 그레이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9/18	박 니콜라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9/25	이 마틸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성인 복사
10/2	유 요한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0/4	이 그레이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9/4/16	\$245	\$70	\$1,000

새 신자 교육 9월 부터 시작

9월 4일부터, 한인공동체 새 신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 하였습니다. 주위에 새 신자 교육을 받아야 되실분이나, 관심이 있으신분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 마가렛 자매님께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공소 시대의 사람들

이화는 요안나 시인

드디어 저희 동네에 공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매일 공소에 모여 초기 교회의 사람들처럼 함께 밥 먹고 일하고 교리 공부를 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노인 문답으로 교리를 시작하는데 “천주 몇이시뇨?” “천주 하나이시니”를 어머니가 선창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 외었습니다. 「장화홍련전」이나 「숙낭자전」을 읽던 곡조로 교리 문답에도 특별한 곡조가 붙었습니다. 저도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귀에 뵈 노인 문답으로 세례 준비를 하였으니 애늬은이던 셈이지요. 일요일이면 하양성당에서 신부님과 원장 수녀님이 나오셔서 미사도 하고 전례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수녀님 눈에 제가 들었던 모양입니다. 저를 수녀원에 보내자고 어머니께 권하셨지만, 저는 결국 수녀가 되지 못하고, 어머니는 오래 아쉬워하셨습니다. 흘러간 공소 시대의 에피소드입니다만 살아보니 가정이라는 곳도 또 다른 성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이면 공소에 봉사하러 오시는 신학생이 한 분 계셨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분이셨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저희 집에 모셨는데 그 당시 사춘기 여중생, 여고생이었던 언니와 저로부터 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의 눈을 기울이지 않았지요.

겨울이면 동네 앞 연못에서 얼음지치기를 하는데 스케이트가 서툰데 제가 아이들과 놀고 있던 신학생의 팔을 잡았다고, 그 광경을 멀리서 본 어머니는 그날로 스케이트를 압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신학생 오빠가 친오빠보다 더 좋았습니다. 신학생 오빠는 해마다 공소에 내려와서 성경과 교리 외에도 음악과 연극 등을 지도해 주셨는데 그 덕분에 우리는 특별한 문화를 누리며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소식

교무금 납부 요망

교무금은 교회유지를 위하여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이며, 그 기원은 구약의 십일조에서 유래 합니다. 교무금에 대한 의무는 열심자와 냉담자, 성사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구별없이 모든 교우에게 부여된 의무이므로, 성실히 신자의 의무를 수행하시어, 교회유지와 사업에 도움을 주시고, 주님의 은총 또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협 임원회의: 9/11 (일) 오후 7시

9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는, 둘째 주일인 9월 11일(주일) 저녁 7시에 사제관에서 있습니다.

2016년 가을 피정 계획

지난주에 성경공부(성서통독)가 성황리에 시작 되었습니다.열심히들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의 여러가지 사정상, 우리 공동체가 2016년에 피정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정에 관하여,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구역장이나, 총구역장에게 전하여 주시면, 2주간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2016년 가을 피정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성당 골프 대회, 10월 2일, 12시 30분. River Lakes C.C.

매년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인공동체 골프대회를 10월 2일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차고, 즐거운 골프대회를 위해, 준비위원으로 일하실,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분은 이 요한 총무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공부(성서통독) 안내

성경공부(성서통독)은 9/4/16 미사후에 본관 친교실에서 시작 했습니다. 원하는분은 누구나 참석 할 수 있으므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참석이 기대 됩니다.

누구에게도 적절한 거리 이상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감시와 보호 아래 그분은 무사히 사제가 되었고, 그분이 바로 대구대교구 대주교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제 어머니를 고마워하셨습니다. 성직자가 될 분을 지극히 모시던 어머니는 평범한 시골 아낙이었지만, 그 지혜는 ‘생이지지(生而知之)’ 습니다. 배워서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타고 난 지혜라는 말이지요

지금은 공소가 있던 자리에 아담한 성당이 들어섰고 불모지던 땅에 천주교의 씨를 뿌리고 가꾼 어머니는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셨습니다. 번성한 대한민국 천주교의 역사 속에 풀뿌리 같은 시골 아낙의 힘이 분명 든든하게 받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시길, 보고 겪은 제가 그 마을의 마지막 증인인 셈입니다.

===== (교리 상식)

‘성체를 일 년에 몇 번 해야 하는가’ 하는 규정이 있나요?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일과 의무 축일에 전례에 참여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이때 성체를 받을 권하고, 더 나아가 더 자주, 날마다 성체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체를 하기 시작한 신자들은 해마다 적어도 한 번, 가능한 한 부활 시기에 성체를 모실 의무가 있습니다.